

## “더 많은 사람들과 통일의 가치 나누고파” | 이상엽 대주회계법인 상무

서울의 한 회계법인 사무실. 숫자와 장부로 가득한 이곳에서, 한 남자는 또 다른 계산을 이어간다. 이익과 손실이 아닌 사람과 사람을 잇는 가치의 셈법이다.

대주회계법인 상무로 재직 중인 이상엽 회계사 겸 세무사. 그는 오늘도 통일을 향한 작은 실천을 묵묵히 이어가고 있다.

1962년 완주군 봉동에서 태어난 이 회계사는 완주중과 전주고를 졸업하고 서울에 유학,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회계사와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1989년 회계사의 길에 들어선 그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전문직의 삶을 살아왔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바꾼 것은 1988년, 현대 정주영 회장이 소떼를 이끌고 북한을 방문했던 역사적 장면이었다. “그때 느꼈던 전율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지도 무엇인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 다짐은 10여 년이 흐른 뒤 현실이 됐다.

그는 북한 어린이에게 축구공 일만 개를 보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2011년 ‘통일문화’라는 이름의 카페를 네이버 포털에서 만들어 활동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임의단체였지만, 2020년에는 회원들과 함께 자본금 5천 만 원을 모아 사단법인으로 정식 출범시켰다. 그 과정에서 그는 개인적으로 2700만 원을 보냈다.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내가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말은 답답했지만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이상엽 회계사의 활동은 구호에만 그치지 않는다. 2024년 10월, 그는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의 아이들에게 축구공 1,000개를 전달했다. 무려 18개월간 준비한 프로젝트였다.

항공사와 기업의 협조를 이끌어 내고 직접 현지까지 찾아가 증정식을 가졌다. 그는 이 프로젝트를 Dream 천사 프로젝트라 이름 붙였다.

“아이들이 축구공을 받아 들고 웃는 모습을 보는데, 그 순간만큼은 국경도 이념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가 견뎌 온 것은 단순한 축구공이 아니라 희망과 연결의 상징이었다. 이 모든 과정을 그는 80여 페이지에 달하는 백서로 기록했다. 시작부터 끝까지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정리된 기록은 그의 또 다른 철학을 보여준다.

그는 특히 ‘회계의 투명성’을 강조한다. “증빙이 불명확한 비용은 모두 제 개인 돈으로 처리합니다. 공익 활동일수록 더 깨끗해야 합니다.” 회계사로서의 직업윤리

가 그의 통일운동에도 그대로 녹아 있는 것이다.

문화 활동 역시 그의 중요한 실천 방식이다. 2021년 12월에는 행정안전부 국고보조금 지원 아래 ‘제1회 통일문화영화제’를 개최했다.

올해 4월에는 서울 서초아트센터에서 ‘나래코리아’와 함께하는 통일문화 음악회를 열었다. 클래식과 대중음악이 어우러진 이 무대에는 90여 명의 관객이 함께했다. 대형 공연장이 아닌 소규모 공간에서 펼쳐진 공연은 오히려 깊은 울림을 남겼다. 그는 “그리운 금강산, 내 그리운 나라” 에반 의미를 담고 나머지는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음악으로 채웠다. 그 결과, 공연은 다시 찾고 싶은 무대라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의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내년에는 ‘통일문화 미술전’을 구상하고 있다. 음악을 넘어 미술로, 더 많은 사람들과 통일의 가치를 나누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그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강남구에서 활동하고 있다. 세 번의 도전 끝에 얻은 소중한 자리다. “포기하려던 순간에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의 말에는 지난 시간의 무게와 앞으로의 각오가 함께 담겨 있다.

/이만호 기자



지난 1일 봉행된 춘향제향. (사진=남원시청 제공)

### 남원시, 제96회 춘향제향 봉행

남원시는 지난 5월 1일 오전, 제96회 글로벌 춘향제에서 춘향의 절개와 효 정신을 기리는 춘향제향을 봉행했다.

춘향제향은 매년 개최되는 춘향제의 대표 전통 행사로서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대내외에 알리는 역할에 기여하고 있으며, 올해 제향은 고전소설 ‘춘향전’의 주인공 성춘향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전통 제례 문화의 가치를 시민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역대 춘향 수상자와 올해 선발된 수상자들이 함께 참여해 세대를 아우르는 전통 계승의 의미를 더하며 춘향의 상징성을 한층 부각했으며, 제향을 참관한 시민들은 “춘향의 정신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관심을 나타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춘향다움 추구하는 최고의 미의 대전’ | 제96회 글로벌 춘향선발대회 성황리 개최

진 김하연 · 선 이소은 · 미 리나 선발

남원시는 지난달 30일 관한투원 앞 특설무대에서 치러진 제96회 춘향제 글로벌 춘향선발대회를 개최했으며, 참가번호 17번 김하연 양(만 22세, 경기도 파주, 한양대 무용학과 졸업)이 춘향진으로 뽑혀 대한민국 최고 미인으로 등극했다고 밝혔다.

춘향선발대회는 지난 2024년부터 국제 대회로 바뀌어 올해 국내외 참가자 총 36명이 본선에 올랐으며, 선(善)에는 이소은 양(서울, 서울대), 미(美)에는 리나 양(우크라이나, 경북대 대학원 재학)이 선발되었다.

또한 정(貞)에는 김도현 양(서울, 동국대 휴학), 숙(淑) 김서원 양(전주, 한국예술종합대 휴학), 현(賢) 이현아 양(서울, 한양여자대 재학)이 각각 수상의 기쁨을 안았다.

이외에도 특별상인 글로벌 앰버서더에는 엘로디 유나 불라둥 양(스위스)과 안젤라 보세네 양(캐나다)이 선정됐다.

본선에서 최종 선정된 춘향진 선, 미, 정, 숙, 현 6인과 글로벌 앰버서더상 2인, 기업후원상 2인은 등 10명의 수상자들은 남원시 홍보대사로 위촉되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올해 대회는 국내외 다양한 배경의 참가자들이 함께해 글로벌 춘향선발대회라는 이름에 걸맞은 무대를 만들었다”며, “춘향제가 전통을 넘어 글로벌 k-컬처 축제로 도약하는 가능성을 다시 한번 보여



미스춘향 진에 선발된 김하연양. (사진=남원시청 제공)

줬다”고 밝혔다.

춘향 진에 선발된 김하연 양은 “소통하는 앰버서더로 남원 알릴 것”이라며, “무용을 전공한 저에게 춘향제는 단순한 미의 대전이 아닌, 지적체력을 겸비한 춘향다움과 전통미를 추구하는 최고의 미의 대전으로, 진의 영광이 주어져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춘향 ‘진’ 김하연,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 무용을 통해 배운 표현력 · 아나운서 준비로 다져온 전달력 결합 남원 문화 자산 알릴 것”

또한 김 양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라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는다”라고 전하며, “어린 시절부터 사람들 앞에서 것을 즐겨 학생회장을 맡기도 했고 현재는 아나운서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특히 무용을 전공한 재인이기도 한 그는 “무용을 통해 배운 풍부한 표현력과 아나운서 준비로 다져온 정확한 전달력을 결합해 남원의 문화 자산을 더욱 매력적으로 알리겠다”고 앞으로의 행보를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 죽향동, 광양 다담면과 대동길놀이 행진

남원시 죽향동은 제96회 춘향제 대동길놀이 ‘춘향캐니벌’에서 자매결연 도시인 전남 광양시 다담면과 함께 행진하며 자매결연 지역 간 화합을 다졌다.

이번 행사는 죽향동과 다담면 간의 두터운 우호 관계를 대내외에 알리고, 축제를 통해 모두가 하나 되는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올해는 다담면 이장단 22명이 작년에 이어 2회 연속으로 대동길놀이에 직접 참여하며 그 의미를 더했다.

이날 죽향동인과 다담면 이장단은 전통 단오놀이의 고전적 미학과 현대적 감각의 케이팝대문헌타스를 결합한 역동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 춘향제에 올려 퍼진 ‘추월만정’ | 제53회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 성료

판소리 명창부 대통령상에 박수현씨

남원에서 펼쳐진 제53회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에서 전북도립국악원 소속 박수현(41)씨가 영예의 명창부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지난 5월 2일부터 3일까지 남원아트센터와 춘향문화회 슬화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박수현 명창은 판소리 심청가 중 추월만정 대목을 열창 ‘추월만정(秋月滿庭)’은 심봉사가 황성 맹인 잔치로 향하던 중 딸 심청을 그리워하며 부르는 대목이며, 이번 수상은 박 명창의 끊임없는 도전과 인내의 결과물이다. 춘향국악대전에만 세 번째 도전한 그는 지난 제1회 대회 우수상에 이어 올해 마침내 최고봉에 올랐다.

최동현 심사위원장은 “박 명창은 비장미와 골계미를 노련하게 소화했을 뿐만 아니라 소리의 깊이를 가능케 하는 공력이 좋았다”라고 호평했다.

현재 전북도립국악원 창극단 상임 단원으로 활동 중인 박 명창은 만 10세 소리에 입문 남원국악예술고, 전남대학교 국악과 졸업, 첫 스승인 임희영 명창, 장문희 명창 등으로부터 사사 받았다.

춘향국악대전 판소리 명창부 대상 수상자에게는 대통령상과 상금 5,000만원이 수여되었다.

“춘향국악대전에 세 번째 출전에서, 이렇게 가장 큰 상을 받게 되어 정말 가슴이 벅칩니다. 심청가 5시간 완창 발표회를 다수 열었던 끈기, 임희영·장문희 선생님의



춘향국악대전 판소리 명창부 대상을 수상한 박수현씨. (사진=남원시청 제공)

가르침과 8번의 전국 대회 도전 경험이 오늘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수상 직후 박수현 명창은 “지난 4년 동안 전국 각지 대회에 8차례나 출전하며 쌓은 실천 경험이 큰 도움이 됐다”며 “남원예술고 출신으로서 고향과 같은 남원에서 큰 상을 받게 되어 가슴이 벅칩니다”고 소감을 밝혔다.

명창부 대통령상 수상 박수현씨  
“여덟번의 전국 대회 도전 경험 오늘 만들어... 새 시작 삼겠다”

이어 “평소 애원성이 좋다는 평가를 받아 가장 보여드리고 싶었던 ‘추월만정’으로 인정받아 너무 기쁘다”며 “이번 수상을 원성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삼아 앞으로도 전통의 깊이를 지키며 대중과 소통하는 소리꾼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수많은 명인 명창을 배출한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춘향국악대전이라는 큰 대회에서 큰 상을 주신 만큼 앞으로 더 정진하며, 남원과 연계하는 국악을 활성화에도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농협 남원시지부, 춘향제 현장서 농심천심 운동

농협 남원시지부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쌀 소비 활성화를 위해 남원시 대표 지역축제인 춘향제를 찾은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이성호 남원시 부시장과 김중주 농협 남원시지부장을 비롯한 시청 및 농협 임직원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남원시지부는 행사 참가자를 대상으로 건강관·식습관·정립과 우리 쌀 소비 확대를 위한 ‘아침밥 먹기 운동’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인 ‘춘향애인 쌀’을 나눠주어 큰 호응을 얻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진안지역 농협, ‘사랑의 헌혈 캠페인’ 진행

농협 진안군지부(지부장 한정호), 진안농협(조합장 김문중), 백운농협(조합장 김연태), 부귀농협(조합장 김영배), 무진장축협(조합장 송재근), 진북인삼농협(조합장 신인성) 이하 진안군 범농협은 최근 임직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혈액 수요가 급증하는 등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더욱 의미가 크며, 지속적인 헌혈 참여를 통해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여자들은 “헌혈은 통해 따뜻한 마음을 나눈다”는 취지 아래 자발적으로 동참해 의미를 더했다.

한정호 지부장은 “혈액 수요가 어려운 시기에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더욱 의미가 크며, 지속적인 헌혈 참여로 따뜻한 나눔 문화가 확산될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문중 조합장은 “헌혈은 작은 실천이지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나눔”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 전북대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최우수기관’ 선정

전북대학교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2025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하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환자 안전과 간호 서비스 수준, 운영체계 적정성 등 다양한 항목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다각적인 지표를 통해 총 5개 등급으로 나뉘어 평가됐다.

전북대병원은 전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하며 의료 서비스의 질적 우수성을 입증했다. 특히 광주·전남·전북·제주를 포함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관할 의료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의미를 더했다.

/오상근 기자

